



## 문학에 나타난 신라인의 자연관

---

저자 (Authors)	김일렬
출처 (Source)	<a href="#">어문학</a> , 1974.10, 13-37(25 pages) <a href="#">Eomunhak</a> , 1974.10, 13-37(25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어문학회</a> hankukeomunhakhoe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864">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52864</a>
APA Style	김일렬 (1974). 문학에 나타난 신라인의 자연관. 어문학, 13-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07 11:29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文學에 나타난 新羅人의 自然觀

金 一 烈

## 〈內 容〉

- |                    |                              |
|--------------------|------------------------------|
| I. 序               | V. 對立의 克服과 和解                |
| II. 審美的 對象으로서의 價値  | VI. 自然과 結付된 世界觀의 몇 가<br>지 問題 |
| III. 信仰的 對象으로서의 價値 |                              |
| IV. 綜合的 調和態로서의 自然  | VII. 結 論                     |

## I. 序

本考는 新羅人이 우리 歷史上 그 어느 時代보다도 自然과 깊은 紐帶를 맺고 生活했다는 事實을 重視, 그들의 自然觀 및 그와 關聯된 世界觀의 一端을 살펴 보고자 試圖된 것이다.

意識 自體가 除去되지 않는 限 意識의 主體로서의 人間과 世界와의 對立은 本質적으로 解消될 수 없다. 이것은 意識을 가진 人間の 宿命이자 그것은 克服하고 뛰어넘으려는 지지프적 努力의 出發點이기도 하다. 自然도 世界의 一部라는 點에서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 또한 原則적으로 이런 範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自然은 단순한 抒情的 對象으로부터 存在의 깊이로 통하는 哲學的 次元에 이르기까지 廣範한 領域에 걸쳐 多樣한 問題를 提起한다.

資料는 羅代 說話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는 三國遺事 및 三國史記에 실린 說話(插入 歌謠 包含)로 한다. 물론 여기에는 위 文獻들이 古代的 事實을 얼마 만큼 純粹하게 保存하고 있느냐는 點이 問題로서 남게 되어 資料로서의 價値가 弱化될을 前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本考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試圖에 不過하므로 全體적인 輪廓을 잡는 데 主眼點으로 두었다.

## II. 審美的 對象으로서의 價値

新羅人은 自然을 단순한 感覺的 審美的 對象으로만 보는 데 滿足하지 않

있다는 事實에서 우선 그들 自然觀의 特徵인 面貌가 드러난다. 그들은 自然을 情緒的 感覺的 對象으로 感受하면서 끊임없이 信仰的 宗教的 次元으로 까지 그 認識을 深化시켜 갔다.

新羅의 自然은 新羅人에게 있어 審美的 對象이면서 同時에 그 以上の 것이었고 이 兩面 價値의 調和가 羅代 自然觀의 核心이었으리라는 點을 假設 삼아서 論議하기로 한다.

이 兩面은 當代人들에게 결코 分離되어 意識되었다고 볼 수 없지만 論述의 便宜上 分離하여 順序대로 考察하고 나중에 綜合하기로 한다.

新羅人은 自然을 審美的으로 享受하는 데 매우 純粹한 立場은 취했던 것 같다. 가령 讚耆婆耶歌에 나오는 自然은 人間의 어떠한 觀念에 의해서도 侵襲받지 않은 가장 自然다운 自然으로서의 純粹함이 確保되어 있다.

열치매  
나프얀 드리  
헌구름 조츠 떠가논 안디하.  
새파른 나피여워  
쥬해이 즈시 이슈라.  
일트 나리시 켜혁히  
郎이 디니다샤은  
무스미 조홀 좃누아져.  
아으 잣사가지 노파  
서리 문누을 花劍여.

〈讚耆婆耶歌, 元漚譯〉

總論의 問題點을 考慮에 넣는다 하더라도 自然을 보는 態度의 大體적인 것은 窺知할 수 있다. 鴉구름·달·제피란 나무·조약돌·잣나무 등은 다름 時調의 술(搯)이나 개(竹)와 比較됨으로써 그 自然으로서의 本來的 純粹性이 顯明해진다.

머우먼 곳 워고 지우먼 님 디겨늘  
출아 녀논 언디 눈서리를 구무논다.  
九象의 돌외고된 즐을 탈보후야 아노라.  
나모드 아넌 거시 팔도 아넌 거시  
갓기논 워 시기며 축은 어이 워넌논다.  
너크르 四時에 보르니 그를 표하향노라.

〈尹善道；五友歌, 松·竹〉

이 時調의 「술」과 「대」는 作者의 感覺 아닌 觀念에 의하여 選擇되고 또 강제로 觀念을 移入당한 自然物이다.

앞의 鄉歌에 나오는 自然物들, 혹은 그들이 調和되어 이루는 霧四氣는 作者의 觀念 아닌 感覺과 直觀에 의하여 倏연히 姿現된 繁興의 世界라, 일체의 人間의 觀念이 遮斷되고 오직 觀照의 靜謐 속에 열린 交感의 世界, 神秘의 世界다. 그것은 이디지가 주는 生動感으로 하여 現在와 過去, 生人과 死者, 人間과 自然의 邊을 倏연히 消滅시켜 준다. 이는 詩論的 立場에서 보면 作詩態度와 技巧에 聯關된 問題일 수 있지만 그런 態度와 技巧라는 것도 실상은 그들의 自然觀이라 할 만한 것이 前提되지 않고서는 거의 不可能했을 것이다. 그것은 自然을 觀念으로 遮斷하지 않고 自然 그 自體에서 오는 純粹한 美的 感興을 그대로 享受할 수 있었기 때문에 可能했다. 觀照의 態度가 할 수 있다.

이런 點은 위의 詩調에서 볼 수 있듯이 李朝의 對自然觀과는 완전히 對照를 이룬다. 李朝에 있어서 自然은 人間의 觀念과 一致하는 特徵 때문에 아른답다고 意識되었을 뿐이다. 가령 「술」은 그 常綠이라는 特徵이 不羨라는 人間의 節操과 一致하기 때문에, 그리고 所謂 四君子라는 原名까지 붙은 梅·蘭·菊·竹은 文字 그대로 君子의 德과 志操를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른답다고 느껴졌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新羅人에게 있어서 自然이 親歷的인 調和美, 新鮮味, 倏動感, 原始的인 生命感 등 全身的 快感은 주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느꼈다 할 수 있다.

時調의 立場에 설 때 作者나 鑑賞者의 窮極的인 關心이 到達하는 終着點은 필시 自然이 아니라 人間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鄉歌의 立場에 설 때 窮極的인 關心은 처음부터 끝까지 自然 自體로 集中된다.

언밀하게 따지면 時調의 作者는 자신이 친 觀念이라는 極幕에 가려 근대 自然 自體는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鄉歌의 立場에 서면 所謂 交感 (Correspondence)이란 것이 可能하나 時調와 같은 立場에서면 그것은 不可能하다.

新羅人이 自然을 感覺으로써 純粹하게 感受했다는 또 다른 傍證으로 그들의 美感覺 내지 美意識의 顯著했음을 들 수 있다.

眞興王 때 國家에서 源花制를 創設함에 있어 그 人物의 選定基準의 첫 條件이 美貌였다. 뒤에 源花가 花郎으로 바뀌어 男子가 選拔 對象이 됐을 때

도 事情은 다 찬가지였다. (1)

또 다른 예로 說話 속에 나오는 다음 美貌의 女人들을 들 수 있다.

- 桃花郎 < 遺事 卷一, 桃花女 鼻荆郎 >
- 善德女王 < 大東嶺府群玉, 卷十二 心火遷塔 >
- 水路夫人 < 遺事 卷二, 水路夫人 >
- 處容妻 < 同, 處容郎 望海寺 >
- 善花公主 < 同, 武王 >

美貌의 女人은 新羅 아닌 어떤 時代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重要的 것은 美貌 自體가 아니라 그 美貌에 熱狂의 으로 耽惑한 新羅人의 態度이다.

鬼神과 異物이 犯하고 心火가 爆發하고 他國의 王子까지 탐을 낼 정도로 「艷美」였다고 이야기를 꾸며낸 그들에게서 그들의 美意識의 強度와, 精神이 問題되지 않는 外形的 官能의 美를 熱望하는 美的 趣向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對象을 直視하는 感覺主意的 美意識은 우리에게 自然 觀照의 態度를 알리는 데 不足함이 없다.

그리고 花郎徒는 山水를 遊娛하여 밭길에 미치지 않는 곳에 없었다고 하는 데 (2), 그 山水 遊娛의 主目的이 心身의 修養이었다 하나 그 때 自然의 審美的 價値 또한 크게 重視되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自然을 즐긴다 하더라도 李朝의 그것이 儒敎의 性情論과 君子之德이라는 規範化된 感情을 模倣하며 즐기는 風流라면 花郎의 風流는 驚異와 生命感과 神秘感에 넘치는 大自然과의 距離 없는 全身의 交涉이라고 볼 수 있다.

李丙霖博士는 이런 事情을,

山河草木등 秀麗한 自然에 더하여 限없는 歡喜와 敬虔의 神秘感을 발함이 보통이 아니었다. (3)

고 說明하고 있다. 물론 新羅人의 美意識은 어느 한 次元에 局限된 것이 아니고, 日常生活과 깊이 그리고 널리 關係된 것이었다.

신라의 美意識(美意識)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속속들이 스며 있었다. 의(衣) · 식(食) · 주(住)의 전반에 걸쳐 그랬은 뿐 아니라, 그들의 공적생활(公的生活)에도 여지없이 나타났음을 모든 유적(遺跡)과 유물(遺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1) 三國史記, 卷四, 新羅本紀, 眞興王  
「三十七年春 始奉源花...遂簡美女二人」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郎以奉之 徒衆雲集」
- (2) 史記, 卷四, op. cit 「遊娛山水 無遠不至」
- (3) 韓國史, 古代篇, 1958, 乙酉文化社, p. 597

신라인은 자기 나름의 미의식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그 미적인 생활에 몰두해 온 것이다.

과학들의 생활이 그랬으며 귀족들의 생활이 그랬다. 三十九 금입보(金入宅)의 부호들도 역시 미적 생활에 도취했다.<sup>(4)</sup>

新羅人들에게 美가 生活 全般과 깊이 關聯돼 있었다는 事實은 前述한 自然 美에 대한 그들의 態度를 確認하는 데도 다소의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인다.

### Ⅲ. 信仰的 對象으로서의 價値

新羅人은 自然의 美를 感知하고 그 感知된 美가 價値있다고 認識했을 것이기에 그 美的 對象에 대한 不斷한 關心과 執拗한 探求心을 또한 行使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美를 보고 美 이상의 것, 또는 그 美를 可能하게 한 根源的인 그 무엇을 認識하려는 一連의 心理, 곧 現象의 背일 속에 갈루어진 神秘의 正體를 찾아 내려는 心理는 人類가 普遍的으로 지닌 關心이다. 現象 自體에 대한 關心이 없을 때 그 現象을 可能하게 한 未知의 實在에 대한 問題 또한 提起되기 어렵다.

自然을 단순한 感覺的 對象 이상의 것으로 認識한 데를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a. 新羅有四遊地 將畿大事 則六臣必會其地謀之 則其事必成 一東曰靑松山 二曰南弓知山 三曰西皮田 四曰北金剛山<sup>(5)</sup>

b. 六部祖各率子弟俱會於謁天岸上 議曰 我輩上無蒼生應薩蒸民 民皆放遊 自從所欲 盡覆有經人爲主立邦設都乎 於是乘高南望 揚山下羅井湧氣如霞光垂地 有一白馬蹄淨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馬見人長斯上天 剖其卵得至男…因名赫曆世<sup>(6)</sup>

a는 提示된 四山이 모두 神秘的인 靈的 感應力을 가지고 있어 人間의 뜻에 반드시 感應한다는 것이고, b의 謁川岸上도 靈地<sup>(7)</sup>로서의 機能을 나타내 b는 a와 같은 믿음에 대한 實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르러 自然은 벌써 美的 價値보다도 靈驗的 價値가 더 크게 認定되었다 할 수 있다. 이들 聖所는 실제 祭儀 場所로 使用되던 곳이라 하더라도

(4) 黃奭根, 新羅의 美, 1971, 乙酉文化社, p. 18

(5) 三國遺事 卷一 眞德王

(6) 遺事, 卷一, 新羅始祖 赫曆世王

(7) 謁川은 당시 祭儀의 聖所로 크게 靈魂되었다고 한다. 이 점은 黃潤江發授에 의하여 昭詳히 論證된 바 있다. 韓國敍事文學研究, 1972, 檀國大 出版部, pp. 147~151

우선 여기서 重要的 것은 場所(自然) 自體에 대한 當代人들의 認識 態度이다. 記錄 自體를 일단 낚는다면 a의 비 靈地는 「舍其地謀之」한다는 語로 「其事」가 「必成」된다는 論理이고, b는 六部祖가 「俱舍於關川岸上」하여 謀議 했기 때문에 「童男」을 얻었다는 論理이 된다. 이 두 이야기는 文面 그 自體로서 意求가 完結되어 있다. 말하자면,

(a) (b)

大巨必會其地謀之→其事必成

俱舍關川岸上獻曰云云→得童男(君主)

과 같은 關係에 있어 (a)에 의하여 (b)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나 (a)에 대한 理由는 (a)로서 充分하고, 다른 理由는 있다 해도 副次的인 것일 수 밖에 없다. 가령, 그 땅에 地神이란 게 있어 잘 정기면(奉祀하면) 그 神이 알고 加護해 준다는 具體的인 觀念이 있기에 앞서 「自然인 神秘로운 靈的 能力이 있어 人間의 뜻에 應應한다」는 單純하면서도 가장 普遍的인 信念이 新羅人에게 있었다면 上記 두 記錄은 바로 그런 信念의 說話의 反映일 것이다.

人間의 마음은 感覺的 現象(phenomena of sense)에 賦從하기를 拒否하며 抑壓하기 위하여 本質的 形質으로 하여 可變의 現象界보다 좀더 穩固하고 永久한 그 무엇을 追求해 가지 않는다.

이 感覺的 世界의 속의 속은 참된 世界는 두 가지 範圍에서 演變되어 하나는 窮極的인 實在가 죽은·無意識·非人間的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態度이고, 다른 하나는 生命·意識·그리고 다스 人間的인 感情 및 知性과 類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態度인 바, 前者는 世界의 本質을 物質的인 것으로, 後者는 精神的인 것으로 認識하려는 態度이다.<sup>(8)</sup>

世界의 本質을 精神的인 것이라고 認識하는 態度는 宗教意識의 基礎이 되는 思考 傾向인데 이런 思考가 自然現象과 結合되면서 素朴한 信仰形態를 띠는 것이 animism이다. 이 animism을 土俗의 그 質的 要素를 더욱 철저히 神格化한 信仰形態가 新羅의 土俗信仰인 「自然神信仰」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自然神이란 animism적 思考를 基礎으로 新羅의 國土와 國民을 守護해 주는 山神 地神 등을 말한다. shamanism도 後來的 宗教라면 (高天, 語文繪卷 11, 檀吉城 「韓國原始宗教의 一考」에 의거) 이 自然神信仰이야말로 우리의 土俗信仰으로서 新羅에서 가장 特徵 있게 開花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더해서는 專門的인 研究가 있어야겠지만 우선 暫定的으로 論述의 便宜에 拘할 따름이다.

(8) James G. Frazer; The Worship of Nature, Vol. 1, 1926, London, pp.1~3

三山 五岳이 祀地였고 山神이 자주 出現한다는 記錄<sup>(9)</sup>은 自然崇拜의 極端的인 形이라 생각된다.

國產의 降穡地라고 말하는 龍井, 始林, 龜旨峯 등도 두드러진 聖地였을 것이다.

이런 곳은 두드러진 곳이기와 지금까지도 記錄에 明記되어 있지만 史記 遺事의 謠記錄이 暗示하는 바를 따라 推測한다면 新羅는 사실상 全國土가 聖域化되어 있었다고 하는 편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意味에서의 自然을 信仰的 對象으로서의 自然이라고 便宜上 前提하고 이런 事實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新羅의 土俗的인 上記 自然崇拜 思想은 中期에 佛敎가 輸入되면서 더욱 促進되었다. 佛敎는 본래 이러한 自然信仰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輸入과 동시에 摺折되고 固有化되어 나타난 新羅的 護國的 世俗化 傾向<sup>(10)</sup>은 新羅 固有의 自然觀을 根本的으로 變質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佛敎 自體가 變質되면서 固有化하고 말았다.

遺事 卷三 以下에 나오는 슬한 佛敎 關係 說話에는 佛敎와 自然崇拜 思想이 混融된 狀態를 보여 준다.<sup>(11)</sup> 특히 寺刹 佛塔의 建造地가 自然勝景地이고 自然勝景地는 대개 聖地였을 것임을 勘察하던 這問의 事情을 일대쯤은 暗示받을 수도 있다.

어쨌든 新羅 一代는 自然에 對한 信仰的 關心이 한결같이 높았던 것은 事實일 것이다.

簾의 神秘를 가졌다고 意識된 것은 地上의 自然物 뿐 아니라 宇衍空曠의 天體들도 마찬가지였다. 新羅에도 道仙思想이 이미 輸入되어 天上이나 上帝나 하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기는 하나,<sup>(12)</sup> 後代의 그것처럼 人間의 運命과 地上의 諸般 秩序를 掌握하고 左右하는 段階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自然崇拜 등 固有信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敬愛했던 것 같다.

달은 日月星辰은 특히 많이 나타난다.

延壽郎과 細鳥女는 日月之精으로 日本의 건국했고,<sup>(13)</sup> 廣德殿莊의 같은 侍의 笠翁은,<sup>(14)</sup> 體屋歌의 별은 花郎의 引導者로 그려져 있다.

(9) 貞記, 卷三二二, 雜錄「三山五岳三下名山 大川 分爲大中小花 大祀三山」  
「遺事, 卷二, 景德王 忠談郎 表訴大德」王御叔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碑或現 於於聖處」

(10) 崔致禧; 韓國學報, 1969, 人文社, 제2권 불교연구학

(11) 물론 固有(信仰과 佛敎와의 關係는 간단히 處理에 可된 수많은 있는 問題이지만 本 여기의 論의 領域이기에 略한다.

(12) 遺事 卷一의 天賜雲帶, 卷二의 讚祥婆郎歌條 등등

(13) 遺事, 卷一, 延壽郎 細鳥女

(14) 遺事, 卷五, 臥天術 慈屋歌

史記에 怪星(주로 慧星)의 出現 記畵가 무수히 나오는 데 惑星의 出沒이나 星座의 變化가 科學的 運動 秩序보다 人事에 介入하는 靈的 存在보다 더 많이 靑想되었던 것 같다. 日氣의 突變 등 自然의 異變은 日官의 占卦에 의하여 人事的인 角度에서 풀이되곤 했다.

個人的인 私事에서부터 重大國事에 이르기까지 諸般事가 自然과 深刻한 關係를 가진 것으로 보아 自然에 대한 이러한 態度는 一部層에 局限된 奇癖이 아니라 普遍的인 信仰態度였다고 볼 수 있다.

新羅人은 說話 資料로 볼 때 natural한 自然物이 그 本質로서 supernatural한 面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natural과 supernatural의 差異는 事物의 本質을 理解하려는 人間의 一般的인 智慧(philosophy)에 의존한 것이며 supernatural은 natural이상의 것, 그보다 優越한 것이다.<sup>(15)</sup> 이런 생각은 animism을 信奉하는 사람들에게 普遍的이라 할 수 있다.

新羅人에게 自然은 supernatural한 面을 가지기에 더욱 重要하고 人間과 不可分의 關係를 維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地, 植物, 動物, 天體 등 多様하고 相互 異質的인 natural로서의 自然現象은 supernatural로서의 同質性을 지닌다. 自然物에서 外面的 現象보다도 그 內面的 靈的 要素가 더 重視되었으리라는 事實은 靈魂不滅思想을 담은 說話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高句麗의 神靈이 楸南의 魂은 新羅에 와서 金庾信으로 遷生했고,<sup>(16)</sup> 圃淵居士는 죽어서 그 魂이 竹旨郎이 되었으며<sup>(17)</sup> 冥嚮王의 魂은 桃花女와 交通하여 鼻荊郎을 낳았다.<sup>(18)</sup>

이러한 靈魂不滅說은 다른 世界의 普遍的 現象이고,<sup>(19)</sup> 우리 叙事文學에도 遍時的으로 存在해 왔다.

自然物에 대한 信仰과 死後의 靈魂에 대한 信仰은 兩立하기 어려운 것일 듯 하면서도 실재에 있어선 相互 受容되면서 崇拜者에 의하여 同一한 信念을 갖게 했다고 Frazer는 말하고 있다.<sup>(20)</sup> 이런 事實은 古代의 自然觀을 理解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5) E. A. Hoebel; Anthropology, 1966, New York p. 464.

(16) 遺事, 卷一, 金庾信

(17) 遺事, 卷二, 孝昭王代 竹旨郎

(18) 遺事, 卷一, 桃花女 鼻荊郎, 그外 文武王, 朱鄒王, 南照王妃, 雲帝夫人, 仙桃山神母 등도 같은 類라할 수 있다.

(19) James G. Frazer; The Fear of the Dead in Primitive Religion, Vol. 1, 1933, London, Lecture I.

(20) E. A. Hoebel; op. cit., p. 17 (recit.).

死者든 生人이든 肉體는 하나의 可變的 感覺的 現象일 뿐이고 永久 不變하는 實在은 精神(靈魂)이라는 점에서 生人和 死者는 同一平面上의 存在이다. 단, 人間은 자신이 죽음을 직접 體驗해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死者의 靈魂은 經驗을 超越해 있고 人間보다 優越하다고 認定되기 때문에 supernatural 이 되나 生人의 精神은 經驗的으로 確認될 수 있는 것이기에 supernatural 이라고 할 수 없다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自然物과 人間이 內的으로 連結될 수 있는 確實한 根據는 兩者가 다같이 靈物 存在라는 事實에 있다. 死者의 靈魂도 經驗을 超越하여 있고 能力的으로 人間보다 優越하다고 認定되기에 信仰 對象으로서의 自然과 同一한 性格을 지닌다.

生人 死者 그리고 自然은 意識(靈)을 가진 存在, 靈體이 形體보다 더욱 重要하고 根源的인 存在라고 생각한 것은 多種多樣的 諸現象을 單純化하고 單一化하려는 普遍的인 慾求에 基因한다.<sup>(21)</sup>

이러한 animism의 思考의 土壤 위에서 人間과 自然 사이의 交涉 可能性에 대한 認識論的 根據가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animism이 信奉되는 社會에선 自然現象은 다른 精靈的 存在와 더불어 실은 恐怖의 對象이었고 이 恐怖가 信仰心을 誘發시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런데 주어진 資料에 의하면 新羅의 自然은 人間에게 徹底히 友好的이었다.

自然이 人間에 대하여 對立되어 있다고 意識되었을 때 恐怖를 느끼게 될 것이다. 新羅人은 이 對立에서 오는 恐怖를 崇拜에 의해 和解로 바꾸려는 不斷한 意志를 보여주고 있다.

#### Ⅳ. 綜合的 詞和態度로서의 自然

지금까지 대체로 說話에 나타난 自然을 審美的 側面과 信仰的 側面으로 나누어서 살펴 본 셈이다.

둘 중에서 前者는 人間의 觀念에 의하여 不純하게 着色된 後代(특히 李朝)의 自然과 區別되고, 後者は 外來 宗教에 자리를 빼앗기고 편편으로 물러나 一部層의 迷信의 奇癖 속으로 隱身한 後代의 animism的 自然과 區別된다. 新羅 때 그렇지도 強力했던 佛敎勢力에 끝내 制壓당하지 않고 거역로 佛敎를 變質시켜서 自己 속에 溶解시켜 버렸던 新羅 固有의 土俗信仰의 殘存이라로 新羅의 自然(특히 animism的 意味의 自然)이고 보면 後代의 自然과는

(21) J.G. Frazer; op. cit., p.3

依然히 區別되지 않을 수 없다.

審美的 側面은 感覺作用단으로 享受되지만 信仰的 側面은 感覺, 情緒, 觀念, 意志 등 多面的 享受機能에 의하여 體驗된다 할 수 있다.

考察의 兩面으로 區分은 했지만 실제 當代人들에겐 綜合的 全身的으로 享受되고 體驗되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綜合的인 立場에서 볼 때, 「驚異로운 大自然에 대한 執拗한 信念과 關心」이라는 共同의 發판을 띠고 「純粹한 審美感과 animism的의 固有信仰」이 만나는 자리에서 新羅 特有의 自然觀은 誕生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純粹한 感覺機能에 의한 審美的 側面은 얼마쯤의 觀念을 前選하지 않을 수 없는 信仰的 側面과 다소 相異함이 事實이다. 그러나 그것도 철저히 對照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信仰心은 그 自體가 觀念단으로 成立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힘을 情意的인 面에 기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그 觀念은 審美的 態受力을 철저히 저해하는 李朝의 觀念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R. Marett는 觀念化가 거의 存在하지 않고 情緒的으로 神聖하게 느껴지는 自然物이 살고 있다고 보여지는 段階가 animism의 前 段階로서 存在한다는 主張을 하고 있다.<sup>(22)</sup>

新羅人은 自然을 단순한 感覺的 快樂만을 追求하는 遊藝場으로도, 怪奇한 觀念에 사로잡힌 未開人처럼 迷信的 對象으로도 보지 않았다는 事實을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審美感과 信仰意識은 不可分의 表裏關係를 이루면서 相互 刺戟 促進하며 高次元的으로 上昇했다 할 것이다.

앞에서 分析的 考察을 위해 natural과 supernatural을 問題삼기도 했지만 M. Wax등의 몇몇 文化人類學者들에 의하면 실제 未開人의 意識에 있어선 natural과 supernatural사이엔 分명한 差異가 存在하지 않으며 그것은 유법적 合理主義產物일 뿐이라고 한다.<sup>(23)</sup>

E. A. Hoebel은 이 論理를 認定하고 그 二分法은 現象을 分類하기 위한 分析的 概念이고 실제 人間의 意識에는 R. H. Lowie의 말과 같이 聖(sacred)과 俗(profane)의 差異로 存在하는 것이라 했다.<sup>(24)</sup>

(22) Encyclopaedia Britannica, 1961, London, Animism

(23) e.g. M. Wax and R. Wax; Current Anthropolog, Vol.4, 1963 'The Notion of Magic'

(24) E. A. Hoebel; op. cit., pp.519~532

Lowie의 의하면 Sacred는 Extraordinary, Mystery 그리고 Supernatural을 包括한 概念이다.

이것은 新羅人의 自然觀을 理解하는 데 매우 適切할 듯하다. 審美活動이나 信仰行爲는 感覺的 情意的 機能이므로 一般的인 事物과 國土의 大自然은 「俗」과 「聖」이라는 差異로 享受되었다 할 것이다.

審美感과 信仰意識의 高次元의 融合 調和는 國土의 大自然을 聖化시켜서 唯一하고 거의 絶對的인 價値로 高揚시켰다 할 수 있다. 聖化된 大自然은 藝術과 信仰의 合一的 境地의 象徴으로서 新羅人에게 「美的 驚異와 宇宙의 神秘와 宗教的 崇高」의 合一體로 體感되었다 할 수 있다.

前述한 바 있지만 花郎은 國土의 全域에 발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할 정도로 自然을 遊娛했고 花郎道를 「風月道」라 異稱<sup>(25)</sup>할 정도로 花郎과 自然과의 關係가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花郎과 國家와의 關係는 짐작스러 云謂될 필요도 없는 問題이겠고 따라서 中堅 國民, 民族의 엘리트로서의 花郎과 그들이 遊娛했다는 自然과의 關係는 곧 新羅人과 自然과의 關係로 換置되어 잘 못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花郎道가 「新羅神史의 核心이 되는 동시에 우리 民族思想史의 源流를 이루고 있다.」<sup>(26)</sup>는 事實을 想起할 때 그것은 더욱 重大한 意義를 지니게 된다.

史記 眞興王條의 「遊娛山水 無遠不至」에 대하여 金鳳守教授는,

- ① 身心鍛鍊 즉 明快한 마음, 強健한 身體育成
- ② 國土에 대한 愛着心을 가지고 地理的 知識의 習得
- ③ 審美的 人間性的 養成, 國難과 危險에 대한 相互 協同의 集團生活을 위한 훈련.

등에서 그 理由를 찾고 있는데,<sup>(27)</sup> 洪淳昶教授는 이와 비슷한 見解를 開陳하고서,

한단 아니라 山水遊娛의 目的이 단순한 유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原始社會에 있어서의 聖地巡禮라는 宗教的인 機能을 가지고 있는 곳에 그 原初的인 意義가 있었던 것이다.<sup>(28)</sup>

라고 하여 祭儀的 宗教的 性格을 原初的 意義로 把握하려 한 것은 花郎의 自然 遊娛에 대하여 正鵠을 짚은 것으로 받아 들이고 싶다.

앞에 든 다른 理由들이 다 妥當한 것처럼 이 宗教的 則面 역시 十分 妥當

(25) 道事, 卷三, 彌伽仙花 宋尸部 眞蓬師(眞興王代)  
「王又念欲興邦國 須先風月道 天下幸選良家男子有德行者 放爲花郎」

(26) 洪淳昶: 新羅花郎道の 研究, 新羅伽耶文化 第三輯, 1970

(27) 金鳳守: 花郎道の 教育的 價値, 高東幹博士頌壽記念論叢, 1950

(28) Ibid., p. 17

하리다 생각된다.

이 경우, 國土의 大自然에 대한(더 구체적으로는 이를테면 各地域의 地神, 山神에 대한) 具體적인 記事가 있었던 없었던 최저한 그 巡禮行爲 自體만으로셔도 이미 事實上的 祭儀的 機能은 遂行되는 것으로 看做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前述한 「四靈地」關係 記號에 대한 解釋과 同一한 方式으로 理解되어 마땅할 것이다.

國民의 엘리트요 國家의 使者인 人間 花郎과 聖화된 大自然으로서의 國土 사이엔 구태어 까다로운 節次가 없더라도 前揭 大臣과 四靈地, 六部祖와 關川 사이 처럼 가장 自然스러운 神秘的 交感이 可能하리라고 新羅人은 믿었을지 모른다. 新羅의 自然巡禮는 오히려 中世 基督教徒들의 聖地巡禮 이상의 多面的 立體的 目的을 가진 重大事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新羅人의 自然觀은 前述한 美的 驚異, 宇宙論的 神秘, 그리고 宗教的 崇高의 合一的 境地 아닌 어느 한 面단으로는 온전히 把握하기 어려운 뿐 아니라 李朝의 風流의 次元으로서는 더우기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V. 對立의 克服과 和解

意識을 가진 人間과 意識을 갖지 않은 自然(事物)은 그 意識의 存在 有無로 해서 本質적으로 存在의 次元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對自存在와 即自存在 사이엔 解消될 수 없는 距離가 가로 놓여 있다.

新羅人에겐 두 가지 存在에 대한 理解의 角度가 이와 전혀 다르다는 點에서 世界觀의 窮極적인 特色이 마련된다.

即自存在인 自然에 대한 認識이 對自存在인 人間에 대한 認識과 類似한 次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의 意識 範圍內에선 兩者 사이에 存在하는 罅은 自然히 消滅되거나 현저히 弱화된다. 이것의 端的인 理由는 自然에도 意識이 있다는 信念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自身の 기쁨이나 괴로움을 意識하는 것은 人間만이 아니다. 自然은 人間과 같은 또는 人間에 準하는 意識을 가진 存在이기에 人間은 自身の 괴로움을 自然과 나누어 가질 수 있고 그에 의지할 수도, 심지어는 그 意識을 支配할 수 (呪術的 行爲로)도 있어 自然이 絕對적으로 부러운 存在는 아니다.

元聖王 때 信忠은 王의 不誠實로 自身の 괴로움을 글로 써서 栢樹에 붙였

을 때 그 栢樹는 枯死 狀態에 이르렀다.<sup>(29)</sup> 自然은 人間의 슬픔을 同情하고 人間의 아픔을 自身の 아픔으로 받아들인다는 信念이 新羅人에게 覆延되어 있었던 모형이다.

新羅가 망하기 얼마 전에 斬浦의 물이 海水와 싸우고,<sup>(30)</sup> 皇龍寺의 潛影이 거꾸로 서고 四天王寺 五方神의 활줄이 끊어지고 壁露의 개가 풀로 쫓아 나왔다<sup>(31)</sup>고 意識한 것은 自然이 新羅의 衰微를 豫言하는 길, 人間의 아픔을 自身の 아픔(異變)으로 意識한다는 新羅人 普遍的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과 自然 사이에 絶對的인 距離는 解消되고 和解 내지 和合의 可能性은 넓게 열린다. 이러한 現象은 마침내 人間과 自然을 宇宙의 秩序 속으로 統合시키면서 그 對立을 止揚한다.

三花이 오롬보샤을 듣고  
 들누 님즈리 혁털바에  
 길썰 벌 바라고  
 愁星여 슬붙여 사르미 있다.

〈愁星歌 중에서, 旣譯譯〉

아직 解讀에 많은 問題點이 있긴 하지만 그런 대로 未堂은 이 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解釋을 내리고 있다.

「길 썰 벌 바라고」云云한 것은 無限大하고 恍惚燦爛한 宇宙의 秩序에 參加하여 永遠히 어긋남이 없으자 한 往年의 新羅의 빛나는 叡智의 記錄이다. …空間的인 無限과 時間的인 永遠 속에 빛나고 變化 없기는 별들 같은 게 이 天地間에는 조 없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별들과 한 行列에 서는 것보다도 관중 더 높게 자리잡고 있다. 이렇게 新羅人의 叡智는 그들의 사람으로서의 位置를 永遠과 無限 속에 빛나는 것으로서 헤아려 가졌던 것이다.<sup>(32)</sup>

未堂의 言述엔 다소의 誇張까지 느껴지긴 하나 그렇다고 根據 없는 이야기도 아니다. 未堂의 「恍惚燦爛한 宇宙의 秩序」는 前述한 바 大自然의 審美的 景觀을 描寫한 것이고, 달도 조심스레 비추어 주고 별이 花郎의 길을 引導한다는 作者의 表現은 意識을 가진 天體가 何等의 距離를 두지 않고 人事에 參與하고 人間을 祝福한다고 觀念했기 때문에 可能했던 것이다.

(29) 遺事, 卷五, 信忠掛冠

(30) 遺事, 卷二, 孝恭王

(31) 遺事, 卷二, 景明王

(32) 徐廷柱, 詩文學原論, 1969, 正音社, p. 27

前掲 四靈地에 있어 「舍其地謀之」하면 「則其事必成」한다는 식의 믿음이 여  
기에도 나타나 있다.

어느 날 月明師가 피리를 불며 門前大路를 지날 때 달이 그 運行을 머무  
렀다고 하는데, (33) 이런 것도 오늘날의 修辭學的 次元의 解釋만 으로서는 온  
전히 理解될 수 없다.

이러한 境地들은 情緒的 次元과 信仰의 次元에 共に 人間과 自然, 自我와  
世界, 主體와 客體 사이의 對立이 없는 和解의 狀態다 이를 수 있다. 별과  
人間이 만나는 자리는 宇宙內的 空間的 距離와 人間과 自然間의 存在論的  
距離가 일체 消滅되는 抒情的 空 抒間 속의 자리이고 때문에 그것은 無限의  
자리다.

그리고 耒堂의 말에 의하면 별은 빛나고 變化 없는 것이기에 永遠을 意味  
하고 人間은 그 별과 同列에 또는 그 위에 位置하기에 또한 永遠한 參照하  
는 것이다. 그러나 新羅人에게 있어서 永遠이란 이같은 情緒的인 次元에 限  
定되지 않는다. 永遠을 志向하는 意志는 信仰的인 永生觀에 의하여 더욱 確  
固한 地盤 위에 자리한다. 前述한 animism이나 土俗信仰의 靈魂不滅思想에  
다시 佛敎의 樂土往生 思想이 加勢함으로써 더욱 強化되었다. 그것은 마친  
내 죽음에 대한 恐怖와 人間의 時間的 有限性은 超越하여 明朗하고 樂天의  
인 世界觀的 氣分을 強化시키고, 永遠 無限의 宇宙의 秩序를 志向하게 하는  
意志와 情緒를 促進시켰다.

樂天師가 慧星歌를 지어 불렀을 때 不吉한 彗星은 사라졌고 들어오던 倭  
軍도 물러갔다고 한다. 이것은 抒情的 次元에선 無意味하거나 理解될 수 없  
다. 作品 속의 世界도 抒情的인 面만 가지고는 作品으로서의 個性과 그 全  
體의인 電感을 理解하는 데 不足하다. 抒情的 側面과 信仰의 側面을 別個로  
分離시켰을 때 理解의 不安全性은 減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그 두 側面의 融合 調和라 할 수 있는 前記 新羅 特有的인 自然觀에 의하여  
은연하게 理解될 수 있을 것이다.

美的 驚異와 宇宙의 神秘와 信仰의 崇高의 區分 없는 調和狀態, 그것은  
가히 新羅人 特有的인 創造의 世界라 할 것이다. 이같이 昇華된 自然觀은 단  
순한 氣分만으로도 단순한 觀念만으로도 얻어질 수 없다. 그것은 차마라 經  
験과 思惟를 超越한 瞬間的인 叙智나 神秘的인 直觀(schauen) (34)에 의해지만 可  
能했을지도 모른다. 直觀은 經驗의 手段인 感性과 思惟의 手段인 理性의 限

(33) 逸事, 卷五, 月明師兜率歌

(34) 崔政洪교수는 固有哲學의 認識 基礎를 神秘的인 直觀(또는 直觀의 神秘主義)에  
서 찾고 있다. po. cit., pp. 30~34

계를 超越한 高次的 認識方法이기에 단순히 素朴하다거나 非合理的이라고 단處理될 수 없다.

人間과 自然의 宇宙論的 和解는 人間이 상으로 自然의 積極性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도 흔하다. 星座는 흔히 人間에게 不吉함을 알려 人間으로 하여금 豫防능계 한다.<sup>(35)</sup>

金庚信이 高句麗의 牒者 白石에게 죽어 함께 高句麗로 가던 중 骨火川에서 留宿할 때 奈林 穴禮 骨火의 三神은 處女로 現形하여 그 危險을 알려 주었다고 한다.<sup>(36)</sup> 그리고 人間을 危脅하는 自然의 異變도 人間의 祈求나 鎮撫에 의하여 解消되곤 했다.<sup>(37)</sup>

宇宙的 秩序 속에서의 人間과 自然의 和解는 人間에게 幸福感을 가져다 준다.

人間은 周圍環境과 和解(conciliation)하고 同一化(identification)하려는 欲求를 지닌다. 身自이 곧 環境의 一部이고 環境이 곧 自身の 一部라고 느낄 때 同一化의 氣分은 成就된다고 N. Fryc는 말하고 있다.<sup>(38)</sup>

新羅人의 自然과 交感 融合한 것은 同一化의 境地, 和解의 경지라 이룰 만하다.

이런 和解의 意志는 對自存在가 그 自身과 即自存在 사이에 있는 壁을 破壞하고 그 制約에 挑戰하려는 欲求에서 나온다 할 수 있다. N. Fryc는 人間이 飛行機를 만들게 한 것은 하늘을 날고 싶다는 欲求보다도 時間과 空間의 威力에 挑戰하는 反抗心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sup>(39)</sup>

新羅人에게서 우리는 온갖 意味의 有限한 存在의 壁을 깨뜨리고 人間 能力을 無限으로 擴張시키고 싶어하는 不斷한 意志를 發見한다.

그것은 人間이 自然 내지 世界로부터 받는 威脅 또는 그로부터의 疏外를 意識하면서 끊임없이 人間의 有限性을 拒否하고 世界와 더불어 있는, 世界內存在이고자 하는 意志에서 나온다. 이런 意志와 努力은 新羅人 自身에게 人間能力에 대한 信賴가 있었기에 可能했고 그 信賴 또한 그러한 意志를 促進시켰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意志나 信賴도 그것을 制約하는 世界의 性格에 따라지 여러 가지 樣相으로 展開될 수 있으므로 世界와의 關係는 항상 相對的일 수밖에 없다. 이런 一連의 問題를 다음 項에서 自然觀과 關聯되는 範圍에서 살

(35) 遺事, 卷五의 融天師慈星歌條의 記事는 그 代衰가 될 만하다.

(36) 遺事, 卷一, 金庚信

(37) 遺事, 卷一, 延鳥郎 細鳥女, 卷五 月明卿兜率歌 등

(38) N. Fryc著, 金相一譯: The Educated Imagination 神話文學論, 乙酉文化社, 제1장, 은유의 동기'

(39) Ibid., p. 27

되기로 한다.

## Ⅱ. 自然觀과 結付된 世界觀의 몇가지 問題

新羅人의 世界觀은 人間과 自然이 合一하여 歸屬되는 單一한 現實界 외에 별도의 世界를 想定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一元的이다.

自然은 supernatural한 面을 가지고는 있지만 獨立的인 世界를 構成하여 人間界를 支配하지는 않는다. 自然이 人間과 和解를 이룩할 때에 하나의 宇宙의 秩序를 志向하면서 人間은 自然과 一體가 되어 和平과 幸福을 누린다. 自然이 不可思議한 靈의 能力을 가지고 人間보다 優越한 것으로 認定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人間에 從屬할 뿐이다. 즉 人間의 秩序를 완전히 떠나서는 自然이 아무런 存在意義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和合되든 對立되든 人間이 自然과 더불어 構成하는 現實은 單一하다.

說話 중에는 道敎의 上帝가 나타나 人間世界에 關與하는 예가 없지 않으나<sup>(40)</sup> 現實界 全般를 支配하는 絶對的인 超越界로 認定돼 있진 않다. animism에 바탕을 두고 佛敎까지 흡수한 固有信仰에 비하여 道仙思想은 그 勢力이 극히 微微했다.

요컨대 新羅에는 地上界와 天上界 또는 現實界와 超現實界라 할 만한 것이 뚜렷하게 區別되어 存在하지 않았다.

이 점은 道仙思想을 主軸으로 儒佛思想이 混合되어 이룩된 後代의 二元的 世界觀과는 완전히 다르다. 後代의 二元的 世界觀 속에선 現實界(人間의인 世界)가 항상 超現實界(神的인 世界)에 從屬하는 劣等한 位置에 서게 되지만 一元的 世界觀 아래선 地上界와 그에 君臨하는 人間 自身이 主가 되고 價値의 基準이 된다.

世界가 一元性을 가지므로 해서 人間을 超越해 있으면서 人間을 支配하는 絶對的 存在란 想定되지 않았다. 人間보다 優越한 存在에 自然이나 佛이 있으나 그것은 人間을 도울 뿐 人間의 行動을 크게 制約하지 않았다.

道敎의 上帝는 前代한 대로 아직 人間界를 包括的으로 支配할 만한 位階를 전혀 確保하지 못했다.

第二의 世界나 超越的인 絶對者가 存在하지 않음으로 해서 現實的인 時間과 空間을 超越해서 存在하는 永遠하고 普遍的인 眞理 또한 存在하지 않았

(40) e. g. 迦寧, 卷二, 景德王條

「王一日詔裴訓大德曰 朕無漸不獲其嗣 願大德請於上帝而有之 訓上告於天帝 還來奏云 常有言 云云」

다.

따라서 李朝의 小說에서 보는 바처럼 人間的 世俗의 秩序가 있고 超越의 觀念的 秩序라 할 만한 것이 따로 存在하지 않았다. 超越의 觀念的 秩序란 普遍的인 原理를 意味하고 普遍的인 原理는 人間 行爲의 規範이 되어 그것을 制約하는 구실을 한다. 李朝에 있어 行爲의 規範은 儒敎的인 道德律이었다.

新羅인 李朝와 달리 絶對 普遍的 規範이란 것이 人間的 行爲를 制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폭넓은 行動의 自由를 누릴 수 있었다. 新羅에도 儒敎 道德律이 輸入되어 花郎精神의 한 要素로까지 採擇되었지만 그것은 現實的 國家觀念을 強化시키는 手段으로 奉仕되었지 李朝小說의 作品世界에서처럼 道德 그 自體가 人生의 窮極的인 意義와 行動의 目標로 看做될 만큼 硬化 내지 深化되지 않았다. 現實에 先行하는 絶對的인 理念에 拘碍받지 않는 경우 人間은 自身이 세운 理念과 目標의 達成에 자유로이 忠實할 수 있게 된다.

道德律이 지나치게 徹底化된다는 것은 行動에 가하는 制約과 拘束이 硬化됨을 意味한다.

新羅人에게 思考의 自由와 行動의 可能性이 크게 開放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說話엔 道德律이 人間的 意志를 지나치게 制約한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行爲의 意義를 道德에 둔 것이 아니라 自身の 人間的 欲求나 國家의 現實的 利益을 成就하는 데서 찾으려 했다. 民衆들이 佛敎를 信仰하던 行爲는 現世에서의 求福 또는 樂土往生의 死後福을 비는 데 주된 目的이 있었지 世俗의 汚辱을 벗고 착하게 살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花郎이 戰場에서 勇敢性을 발휘한 것도 忠이라는 道德 自體가 삶 의 窮極的 意義임을 認定해서라기보다 安全과 繁榮을 志向하는 現實的 國家意識에 의한 行爲라 해야 할 것이다. 希明<sup>(41)</sup> 廣德<sup>(42)</sup> 등의 行爲는 前者에, 史記 列傳에 나오는 花郎들의 行爲는 後者에 關聯되는 예라 하겠다.

後代에 있어 삶 의 窮極的 意義 곧 人間 行爲의 絶對的인 眞理는 倫理道德의 理에 대해 新羅人에게 前述한 대로 그러한 絶對的인 眞理가 할 만한 것이 없었으며 現實的 行爲의 理想이라 할 만한 것으로서 비교적 特徵的인 것은 實用的인 「能力」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能力」이라 함은 특히 倫理道德과는 區別되는 立場에서의 狹義의

(41) 遺事, 卷三,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42) 遺事, 卷五, 廣德嚴莊

힘·勇氣·智慧를 포함한다.

힘은 달려드는 大虎의 꼬리를 잡고 땅에 베어치 죽일 수 있는 가장 單純한 腕力<sup>(43)</sup>으로부터 莫強한 麗. 濟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國家적인 武力에 이르기까지 온갖 肉體的 勇力이다.

眞平王은 身長 11尺의 巨人으로서 帝釋宮으로 가는 石梯를 밟았을 때 세 개의 들이 한꺼번에 부셔졌다는 때 왕은 옮기지 말고 뒤에 오는 사람에게 보이라고 했다 한다,<sup>(44)</sup> 이에 대해 李御寧教授는 「거인(영웅)을 요구하는 당대의 인심 속에서 형성된 巨구」라 전제하면서 「우리는 이 말에서 이미 한 세기 후에 있었던 민족 통일과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鑑賞했다.<sup>(45)</sup>

勇氣는 별도의 能力이라기보다는 힘을 行使할 때 必須的으로 隨伴되는 條件으로 花郎들의 臨戰無退의인 行動으로 代表된다. 물론 이런 힘과 勇(勇力) 즉 武力이 道德的 行爲의 價値를 否定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 힘과 德은 반드시 對立되는 것도 아니며 여기서 勇力은 적어도 다른 時代에 비해서는 뚜렷한 現實的 價値를 認定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힘에 못지 않게 智慧(智謀) 또한 크게 重視되었다. 朴伊宗은 木獅子를 만들어 울릉도 사람을 威脅하여 降服받았고<sup>(46)</sup> 짐지어는 道德的으로 批判의 對象까지 될 만한 그 유명한 脫解王의 「詭計」까지가 智慧라는 美名 아래 容許받고 補償받은 事例<sup>(47)</sup>마저 보인다. 道德에 관계 없이 人間을 智慧에 의하여 評價한다는 것은 注目할 만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人間의 價値基準을 能力에 둔다는 論理이기 때문이다. 人間의 評價基準을 能力에 두는 경우와 道德에 두는 경우 그 基準들이 成立시키는 人間의 行動樣式은 크게 對照를 보인다. 道德에 두는 경우는 李朝小說의 主人公에서 보는 바와 같이 道德的으로 高貴할지 모르나 現實的으로는 가장 無能한 人間 곧 被動的, 消極的, 保守的 人物이 보나, 能力에 두는 경우에는 能動的 積極的 進就的 人物이 된다. 現實的인 利益을 拋棄할지라도, 목숨을 버릴지라도 줄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 前者의 信念이라면 道德律을 犯하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勝利하고 보아야 된다는, 또는 힘이 없이는 道德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主張

(43) 遺事, 卷一, 眞德王 「時有大虎走入鹿間 諸公驚起 而麗川公累不移動 談笑自如 捉虎尾摸於地而殺之 閔川公愕力如此 處於俯背」

(44) 遺事, 卷一, 眞德王

(45) 李御寧, 韓國人의 神話 1973, 瑞文堂, p. 55

(46) 遺事, 卷一, 智哲老三

(47) 脫解가 礪炭의 詭計로 甄公의 鎗을 빼앗고 나침네 脫解王에게 그 智慧를 認定받아(南解王知脫解是智人云云) 公主를 얻고 王位에까지 오본 일은 널리 알려져 있다. <遺事, 卷一, 脫解王>



이 後者의 立場이다.

新羅는 三國을 統一했다. 新羅는 그 自體로서도 莫強한 武力을 保有하고 있었지만 거기다가 外交를 통해서 唐의 힘을 또 가져다 보냈다. 統一을 成就한 뒤에는 唐을 교묘히 除去해 버렸다. 그것도 물론 外交였다. 新羅는 자신이 가진 「武力」과 남파의 「外交」를 통해서 莫強한 麗濟를 征服했다. 武力과 外交는 「힘」과 「智慧」의 그것은 곧 「能力」이다. 唐軍이 가진 武力은 남의 힘이었지만 그것을 끌어들이 後患 없이 利用한 外交 그 자치는 新羅自身이 가진 智慧로 能力이었다. 能力(廣義의 힘)은 個人에게도 重要하지만 民族史와 關聯된 때는 더욱 重大한 意義를 지닌다. 힘과 道德의 民族史的 意義는 新羅의 三國 統一과 李祜의 歷史的 現實에 비추어 볼 때 더욱 흥미로운 바 있다.

道德은 물론 그 自體로서 충분한 意義를 지니지만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強調되어 歷史 發展에 制動을 걸 때는 심각한 問題가 惹起된다. 新羅人이 가졌던 能力(힘·智慧)은 극히 現實的이고 實用的인 性格을 띠었는데 信仰的 意味로서의 自然도 그런 性格을 아주 強하게 띠고 있었다. 自然에 대한 信仰(또는 그의 關聯된 固有信仰, Shamanism, 佛敎 등)은 新羅人이 自身의 能力을 기르고 그 能力에 대한 無限한 信賴를 可能하게 했다. 그들은 自然을 無限한 힘의 源泉으로 認識하고서 그것을 自然과의 交涉을 통해 무한히 吸收하려 하였다.

自然과의 交涉이 가장 활발하게 展開되었던 경우는 特定한 人間과 特定한 自然 사이 이틀리던 靈地 祀地와 같은 場所와 王이나 shaman 등의 人間 사이였다. 祭政 時代인 新羅 初葉의 三은 특히 이런 性格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古代社會에 公共的 利益을 위해 呪術을 행하던 信任받을 만한 權가 결합적인 地位 向上으로 最高의 司祭者 即 統治者로서의 王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普遍的 現象이라 한다.<sup>(48)</sup>

六部祖의 勅에 感應된 關川岸上은 赫居世의 降臨을 可能하게 해 주었고, 眞平王 때 倭寇가 潛襲하에 自然은 眞平王의 三花郎에게 알려 靺婁를 하여금 들머가게 했으며, 成德王은 카다국의 王에 引導되어 水神의 指示를 받고 琴匣을 쓰아 危險을 免했다.<sup>(49)</sup> 善德王은 靈廟寺 玉門池에서 울고 있는 개구리를 보고 百濟軍의 來侵을 알아 물리쳤고,<sup>(50)</sup> 宣德王의 아우 敬信은 關

(48) J.G. Frazer; The Golden Bough, abridged edition, 1953, London, p.80

(49) 遺事, 卷一, 財寧傳

(50) 遺事, 卷一, 善德王知發三事

川에 密祀함으로써 周元 대신 王位에 오르게 되었다.<sup>(51)</sup>

佛敎가 輸入되면서 龍·佛이 또한 自然과 같은 구실을 했다.

新羅人은 自然과의 神秘的인 生命的 交感을 통해 宇宙的 秩序에 參照함으로써 無限한 힘과 智慧를 길러 世界的 威脅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新羅人이 가진 能力은 信賴를 가진 能力이며 信賴를 가진 能力은 언제나 作用이 可能한 動的인 能力이라 할 수 있다. 自身이 能力을 가졌다는 認識과 人間能力에 대한 無限한 信賴는 그들의 自然崇拜思想 내지 自然神信仰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졌으며, 그것은 마침내 世界的 威脅을 물리치고 安全을 確保할 수 있다는 自信감과 더불어 現實의 秩序를 變革 改造시킬 수도 있다는 信念을 가지게 했다. 三國統一의 行爲는 그 歷史的 實證이라 할 만하다. 統一의 首將이었던 金庾信과 自然神(三所의 女神)간에 있었다는 일(前述)에 대한 이야기의 裏面에는 당시 人間과 自然間의 交應關係가 얼마나 활발했나 하는 事實이 內在에 있다.

人間의 能力에 대한 信賴가 특히 顯著했다는 것은 呪術的 行爲에서도 크게 나타난다. 대분의 鄉歌에 붙어 있는 呪術的 事件에 대한 이야기는 그것이 非合理的이라는 批判보다는 人間 自身의 能力에 대한 無限한 信賴의 表現이라는 점을 看過해선 안될 것이다.

그들은 한편 自然에의 信仰을 통하여 그 神秘力을 利用하고 한편 呪術的인 自己能力을 利用하면 世界로부터의 威脅을 물리칠 수 있다는 信念을 가졌던 것이다.

自然이 人間과 굳게 團合될 때 人間은 世界的 威脅으로부터 安全하고 幸福할 수 있으나 兩者 사이의 融和가 鈍化되고 그 紐帶가 解弛될 때 人間은 不可避하게 世界的 威脅에 直面한다고 意識된 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智慧와 誠實에 달려 있다. 自然은 人間의 不運이나 國家의 危險에 대하여 흔히 異變으로써 啓示해 주었다. 그러나 그 啓示는 하나의 暗號에 不過하기에 人間은 그것을 智慧로써 解得해야 했다. 日宮은 自然의 神秘的인 暗號를 풀 수 있는 가장 敏感하고 智慧로운 者로 認定된 者다. 그들은 supernatural의 言語를 natural의 言語, 人間의 言語로 翻譯하는 專門家였다.

人間과 自然間의 交應이 가장 圓滑하게 이루어질 때 서트의 作用은 지극히 敏感했다. 前리한 바와 같이 統一직전엔 危機에 빠진 金庾信을 三所의 地神이 직접 人間으로 現形하여 直說로 그 危險을 알려 주는 親切을 베풀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이것은 물론 自然觀이 迷信의 傾向으로 極端화된 예이

(51) 遺事, 卷二, 二聖大王

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꾸며낸 新羅人들의 意識 속엔 國土의 自然에 대한 無限한 信賴와 人間에 대한 自然의 感應力을 彌調하려는 心理가 潛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統一 前後는 新羅 文化의 全盛期인 同時에 人間對 自然의 交應關係가 가장 강하게 意識되었던 時期라 할 것이다. 憲康王代에 오면 自然과 人間의 紐帶는 현저히 弱화된 다.

又李龜石亭 南山神現舞於御前 左右不見 王獨見之 有人現舞於前 王自作舞 以戲示之 神之名或曰祥番 故至今國人傳此舞 曰御舞祥番 或曰御舞山神 或云 既神出舞 番象其貌 命工 摹刻 以示後代 故云象番 或云霜髯舞 此乃以其形稱之 又幸於金剛嶺 時 北岳神呈舞 名玉刀鈴 又禮殿宴時地神出舞 各地伯級干 語法集云 于時山神獻舞 唱歌云 智理多都波 都波等者蓋言以智理國者 知而多逃都邑將破謂也 乃地神山神知 國將亡 故作舞以驚之 國人不悟 謂爲現瑞 耽樂滋甚 故國終亡<sup>(52)</sup>

곧 地神이, 智慧로 나라를 다스리는 쟁가 나라가 장차 망할 줄 알고 춤으로 警戒하였지만 王은 오히려 吉兆로 解釋하여 耽樂을 더욱 심히 했다는 것이다. 地神 山神도 물론 根本的으로 自然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sup>(53)</sup>. 亡國의 危機를 춤으로 暗示하였다는 事實 자체가 이미 統一 직전 金庾信에게 나타났던 女神들의 警戒 方法과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自然(神)이 人間의 智慧와 誠實性의 弱화를 알고 그것을 試驗한 것이다. 춤은 憲康王에게 亡國의 危機를 克服할 만한 智慧와 誠實性을 가졌는가에 대한 一種의 資格試驗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王은 이 資格試驗에 落第했다. 自然이 주는 赤信號를 反對意味로 解釋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人間에겐 이제 自然의 神祕로운 信號를 풀 수 있는 鋭敏한 智慧도 그것을 풀어 보려는 眞摯한 誠實性도 없어져 버렸다는 當代 民衆들의 안타까운 心情이 이야기 속에 서려 있다. 人間과 自然의 交感은 人間 自身の 不誠實性(耽樂이나 일삼는 生活)으로 하여 이미 恢復하기 어려운 境地로 鈍化되고 말았다는 그들 民衆의 意識 속엔 統一前後와 같은 自然에의 向念이나 人間能力에 대한 信賴는 퇴색했다고 볼 수 있다.

孝恭王 때와 景明王 때 일어난 계속적인 自然의 興變(前禍)에 대한 이야기 속에도 점점 解弛되어 가는 人間과 自然의 紐帶, 그 宇宙的 秩序의 調和가 깨어져 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亡國의 哀傷이 담겨 있다.

만약 三所의 地神이 주는 춤을 보고 憲康王이 眞摯하고 敬虔한 態度로써 그 意味를 解得하러 努力하고 解得된 事實에 誠實과 智慧로써 對處했다면 新羅는 망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52) 遺事, 卷二, 處容郎 望海寺

(53) 물론 이 說話는 사머니즘 儀禮와도 깊은 關聯을 가졌을 것이다.

가령 新羅의 說話에는 상당수의 수수께끼 혹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善德王의 知藏三事 중 第二語는 겨울에 靈廟寺 玉門池에 나와 모인 개구리를 보고 百濟草의 來變을 알아맞춘 이야기다. 이것을 푸는 過程은,

① 蟾→怒形→兵士之象→外兵來侵

② 玉門→女根→陰→白→西方

③ 男根入於女根→死

와 같은 複雜한 解釋 段階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論理的 推理라기보다는 自由聯想이고 순수한 自由聯想이라기는 어려울 만큼 合理的이다. 수수께끼는 원래 合理的인 形式論理로써 칸은 풀수 없는 것이다. 論理를 초월하는 날카로운 機智와 풍부한 想像力이 없이는 풀기 어렵다. 新羅의 수수께끼(?)는 더욱 더 그렇다. 위의 수수께끼를 푸는 善德王에게 그러한 機智와 非常한 想像力이 動員되고 있다. 특히 ③은 그 結果까지 透視한 바가 된다. 冬眠 動物 개구리가 冬節에 나타난 異變을 보고 善德王은 그 自然의 暗號를 풀어 낸 것이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事實 與否나 文學的 興味가 아니라 善德王은 自然의 神秘를 꿰고 그 意味를 풀 만큼 智慧로써 나라를 잘 지켰다는 當代人들의 信念이다.

요컨대 人間에게 自然에 대한 誠實하고 敬虔한 信仰心과 自然의 神秘를 꿰뚫을 수 있는 智慧가 있을 때 人間은 自然과 融合되어 宇宙의 秩序속에서 參照하면서 安全과 幸福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根本적으로 人間의 손에 달린 것이다. 亡國의 徵兆를 自然은 그토록 애써 알려 주려 했지만 不誠實하고 智慧가 鈍化된 人間은 결국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친 것이다. 運命은 결코 어진 超越的인 存在에 의하여 미리 定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人間 自身의 誠實과 智慧와 努力으로 打開하고 保護하고 또한 開拓할 수 있다는 論理를 說話들은 보여 주고 있다.

## V. 結 論

지금까지 論議한 바를 차례대로 간추려 結論을 삼기로 한다.

1. 審美的 對象으로서 感受된 自然의 美는 人間의 觀念으로 着色되지 않은 純粹한 觀照的인 美로 表現되어 있다. 自然은 自體의 屬性으로서 調和美·律動感·驚異感 및 原始的 生命感 등으로 充滿한 美的 對象이다. 이러한 自然은 後代에 人間의 獨斷的 觀念(儒敎的 理性 등)에 의하여 着色된 自

然과 크게 區別된다.

2. 自然은 審美的 對象인 同時에 animism 및 固有信仰(國土 護國神으로서의 自然神에 대한 信仰)의 對象으로 觀想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自然이 신비로운 靈的 感應력이 있어 人間과 交感될 수 있다는 supernaturalism의 認識을 土著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自然觀은 단순한 迷信의 現象으로만 應理될 수 없는 質的 水準과 어느 一部層이 局限되지 않는 當代的 普通性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迷信의 奇癖으로 轉落해 버린 後代의 animism의 自然과는 區別된다.

3. 自然에 대한 審美的 側面과 信仰的 側面은 實際에 있어서 分離되지 않고 綜合적인 調和態로서 享受되었다 할 것이다.

自然에 대한 執拗한 向念과 關心이라는 共同的 土壤 위에서 國土의 大自然에 대한 純粹한 審美感과 animism의 固有信仰이 만나는 자리에서 新羅 特有的의 自然觀은 成立된다. 그것은 感覺 情緒 意志 觀念 등 全身的 享受能力으로 體驗되지 않으면 理解되기 어려운 質質의 것이다.

4. 審美感과 信仰意識의 高次元의 融合은 國土의 大自然을 聖化시켰으며 그 聖化된 大自然은 藝術意識과 信仰意識의 融合의 昇華에 固有한 文化的 價値를 지닌다 하겠다. 그것은 新羅人에게 한결같이 美的 驚異와 宇宙的 神秘과 宗教的 崇高의 調和로운 合一體로 體感되었다.

花郎은 그러한 質質의 自然과 交涉하던 新羅人 중의 代表的 存在라 할 만하면, 花郎의 自然巡禮는 訓練과 遊覽과 祭儀의 性格을 동시에 지닌 國土巡禮 行爲로서 多面的이고도 立體的인 目的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5. 即自存在인 自然에 대한 認識이 對自存在인 人間 自身에 대한 認識과 類似한 次元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人間과 自然間의 存在論 距離 같은 것은(高深와는 달리) 느낀 痕跡이 없고 더욱 自然에 대한 信仰의인 意志에 의하여 兩者間의 對立은 和解와 融合으로 解消시켜 갔다.

6. 新羅人은 그들 特有的의 自然觀에 의하여 空間的으로 無限하고 時間的으로 永遠한 宇宙의 秩序 속에 參劃하면서 人間과 自然, 主體와 客體間의 存在論的 距離가 消滅된 無我和 平衡과 調和의 境地를 體驗할 수 있었다. 이는 情緒的 次元과 信仰的 次元이 綜合 昇華된 特有的의 境地에서 오는 和解感 속에서, 그들의 叡智와 神秘的 直觀에 의하여 可能했다.

7. 新羅人의 世界觀은 自然과 人間이 合一하여 歸屬되는 現實界 이외에 超越的인 世界 같은 第二의 世界를 想定하지 않았다는 意味에서 一元的이다. 自然은 supernatural한 特성을 지니지만 그 自體로서 별도의 世界나 별

도의 秩序를 形成한다고는 믿지 않았으며 道仙의 天上界가 斷片的으로 보이나 二元的 世界觀을 成立시킬 만한 普遍化되지 못했고, 佛敎 또한 同有的 自然觀에 立脚한 世界觀을 根本的으로 變質시키지 못했다.

8. 現實界를 支配할 만한 超越的인 世界가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萬有을 統治하는 絶對者 또한 想定되지 않았으며, 時空을 超越한 人生的 普遍的 眞理 또는 人間 行勳의 絶對的 價値 基準이라 할만한 獨端的 觀念 역시 存在하지 않았다. 때문에 新羅人에겐 思考와 行勳의 自由가 크게 開放되어 있었다. 이는 固有信仰의 本質的 對象이 自然이었고 人間이 自然과 親近하게 和解했다는 데 크게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後代와는 달리 道德的 價値가 絶對的인 權威를 認定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行勳에 필요이상의 倫理的 制約이 加해지지 않았다.

9. 新羅人에겐 倫理보다 오히려 힘과 智慧 곧 能力이 重視되었으므로 人間 能力에 대한 無限한 信賴는 自然과의 內的 交涉과 自然의 신비로운 靈的 能力에 힘입어 더욱 強化될 수 있었다. 그들의 現實的 能力的 背後에는 自然(또는 佛)의 神秘에 대한 信仰과 呪術에 의하여 世界를 支配할 수 있다는 강렬한 信念이 도사리고 있었다. 統三 行爲는 그 歷史的 實證이라 할 만하다.

10. 人間은 自然에 대한 誠實한 敬拜意識과 自然과의 交感 속에서 그 神秘의 言語를 깨닿을 수 있는 智慧를 갖출 때 安全과 幸福을 確保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을 잃게 된다.

따라서 運命은 그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人間 自身の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 간다는 論理들 說話들은 보여주고 있다.

× ×

新羅時代엔 여러 自然神에 대한 信仰, 巫覡信仰, 佛敎信仰등이 當代人들의 生活과 깊이 關聯되었던 것이 사실인 터인데도, 그 信仰 자체에 대해 詳論하지 않는 까닭은 信仰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本考 밖의 問題라는 사실, 그리고 그 說話들의 주위에 전지없이 실각한 宗教的 意味가 도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問題는 當代 民衆들의 意識에서 産出된 說話 자체가 보여주는 意味에 있으므로 說話를 文學的 存在態로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獨自的 意味를 필요 이상의 民俗的 考證에 의하여 歪曲시키지 않으려는 心算에서였다.

그러나 序에서 말한 바와 같이 對象資料로는 이미 當代와 數百年을 격하고 있기에 後代의 添削·潤色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으나, 後代의 그것드 說話의 本質的 核心的 意和體 系統만은 쉽사리 破壞하지 않았으리라는 점과

版者들이 百餘種의 古文獻을 精실히 引用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다소의 慰安을 찾으려 한다.

## An Outlook on Nature in the Literature of Silla Dynasty

Il Lyul, Kim

(Summary)

This report is a study of an outlook on nature in the literature of Silla Dynasty. Materials for this study were folk narratives and verses in Samguk-Sagi and Samguk-Yusa.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Silla Dynasty, man thought the nature had two faces in its value. One is aesthetic face and the other religious one.

The beauty of the nature that was perceived by them was purity, because they appreciated the nature without a preconceived idea. Also they thought the nature had a supernatural quality, and they believed in nature as supernatural being. Their belief in nature was superior to general animism.

Their outlook on nature was formed in harmonizing the two shorts of value, aesthetic and religiou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nature had wonder from beauty, cosmic mystery and religious sublime.

Such a characteristics of nature could be only perceptived through correspondence with nature. They could reach the state of conciliation or identification through that correspondence.

Eventually they overcame the all conflicts between man and world.

And their outlook on nature mentioned above had a deep relation with their unitary world view, the importance of ability and wisdom, belief about man's ability, and the problems of man's fate.